

5월은 선교의 달?

당장 코앞에 다가온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46회 총회 때문에 매우 분주합니다. 송용걸 목사님 이후 20년만에 열리는 시카고 총회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스란히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총회중의 특별행사인 선교의 밤을 호스트하면서 안팎으로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교의 밤에 참석하는 인원만 거의 400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고, 예찬팀과 성가대, 안내와 봉헌을 감당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강사는 কমিশন대표 이재환 선교사님입니다.

총회때 오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강사로 모십니다. 오는 금요찬양예배에는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님께서, 토요새벽기도에는 NOVO Asia 대표인 조영훈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사역을 보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일에도 조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1베드로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페루와 김성일 선교사님 내외의 시카고 방문에 맞춰 20일 금요일 새벽에 선교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28일 토요 새벽에는 주빌리 북한선교 연합집회에 오신 허남일 목사의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5월이 선교의 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1마리아 선교회에서 후원해 오던 터키의 배혜수 선교사님께서 지난 5월3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다는 소식 외에는 들은 바가 없으니 기회가 있을 때 따로 나누도록 할게요.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선교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로 감당하시는 조종우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선교 이야기만 잔뜩 풀어놓았네요. 어머니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2022. 5. 8. 임철성 목사 올림